국가건강검진 후 '질환 의심' 소견자는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지에 '고혈압 의심', '당뇨병 의심'이라 쓰여 있어서 걱정되시나요?
하지만 현재 단계는 질병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추가로 한 번 더 정확하게 질환을 확인해 보자는 의미다.
다시 말해 '질환 의심' 결과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부정의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주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글 손석준 원장(광주전남지역본부 관리의사)

국가가 지원하는 부담 없는 확진 검사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의 절반 이상이 '질환 의심' 또는 '유질환자'로 분류될 정도로 해당 결과는 매우 흔한 상황이다. 2024년 수검 결과 질환 의심 인원은 32.0%, 유질환자는 28.9%였다. 이때 많은 분이 "큰 병원에 가야 하나요?", "검사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닐까요?"하고 고민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국가건강검진에서 의심 소견이 나온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별도의 본인 부담 없이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비용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확진 검사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해 의료 정책의 방향은 점점 치료 중심에서 예방, 관리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의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확진 검사는 건강검진에서 측정한 수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이를 다시 평가해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실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있는지? 혹은 일시적인 수치 상승인지?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단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확진 검사 대상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C형 간염이 있다. 대상자는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첫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1회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C형 간염 확진 검사 대상자는 확진 검사 실시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급 신청이 필요하다.

확진 검사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지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보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확진 검사 대상자라면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확진 검사 대상자임을 알리고 진료받으면 된다. 이때 고혈압과 당뇨병 확진 검사는 병·의원에서만, 폐결핵과 C형간염은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다. 또한 우울증과 조기정신증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및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신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

질환별 차이도 있다. ①고혈압의 경우 진찰, 혈압 측정 ②당뇨병의 경우 진찰, 공복혈당, 당화혈색소검사 ③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진찰 ④폐결핵의 경우 진찰, 객담 도말·배양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⑤우울증 및 조기정신증의 경우 진찰,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검사, 개인 정신치료 ⑥C형 간염의 경우 진찰, RNA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확진 검사 자체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추가 검사가 없다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국가건강검진의 '의심' 결과는 조기에 질환을 확인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비용 부담 없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이후 관리까지 연계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 다만 지정 검사 외 추가 검사 때는 본인부담금이 있다.

고혈압 확진 검사

건강검진 결과에서 기준을 초과한 혈압 수치가 확인됐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고혈압 확진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0/90mmHg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공된다.

고혈압 확진 검사는 진찰 및 상담, 혈압 측정으로 진행된다. 확진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 범위, 경계 단계, 치료가 필요한 단계로 나뉜다. 반복 측정 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90mmHg 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고혈압 확진 검사는 진찰 1회와 혈압 재측정으로 이루어지며 본인부담금 없이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고혈압 진단을 받는 것이 아닌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검진 후 확진 결과에 따라 생활 습관 개선 또는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10% 수준으로, 일반적인 병원 검진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 비용의 90%까지 지원해 준다.

당뇨병 확진 검사

실제 당뇨병이 있는지 혹은 일시적인 수치 상승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상황이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단계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상자는 검사기관 방문 시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한다. 확진 검사 결과 공복혈당 126mg/dL 이상 또는 당화혈색소 6.5% 이상일 때 당뇨로 진단한다.

C형간염 확진 검사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2023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만성 C형간염 환자의 약 5~25%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약 1~4%는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감염자의 약 80%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현재 C형간염에 대한 예방백신은 없으나,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DAA) 치료 시 98~99%의 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 발견 후 적절한 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원 대상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 검사(HCV RNA)를 받은 56세 국민(1970년생, 2026년 기준)으로 확진 검사에 드는 진찰료와 검사비를 최초 1회에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을 검색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방문 신청은 의료기관 발급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검진 실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는 진료비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6년 국가건강검진
확진 검사 실시 안내

일반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인 경우 병·의원에서 검진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 검사가 가능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폐결핵, C형간염은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가능)

의심 질환 및 검사 항목

고혈압 진찰, 혈압 측정	**당뇨병** 진찰, 공복혈당검사, 당화혈색소검사	**이상지질혈증** 진찰
폐결핵 진찰, 도말검사, 배양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	**C형 간염** 진찰, RNA검사	**우울증/조기정신증** 진찰,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개인 정신치료

대상자 확인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 ▶ 자격 확인 ▶ 확진 검사 자격 확인 ▶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 후 대상자 확인 실시 ▶ 진료 일자 저장 후 진료

청구 방법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코드 MT002란에 특정기호 F022기재 ▶ 본인일부부담금은 '0'으로 기재하며 청구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금액을 기재 ▶ 추가 검사, 처치, 타상병 진료 등은 확진 검사 명세서와 별도 분리 청구

※ C형 간염은 대상자가 별도 본인부담금 정산 신청(정부24 또는 보건소)

- **명세서 청구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C형 간염 문의** 질병관리청 **1339**

문의 ▶▶ 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